

# “우대금리 조건 바뀌면 문자 통보”

### 금융위, 제1기 현장메신저 운영결과 발표... 보험상품 설명서에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 등을 알려야

적금이나 대출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조건이 바뀌면 경우 은행은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문자로 통보해야 한다. 또 보험사들은 보험상품 설명서에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 등을 가입자들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기 현장메신저 운영결과 발표를 통해 이들이 지난해 121건의 건의사항을 내 이 중 53건이 수용됐다고 1일 밝혔다.

보통 은행 대출이나 예금상품은 카드 이용실적이나 공과금 등 지능이체 실적 등에 따라 변경된다.

하지만 소비자가 우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사실이 전달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1분기부터 우대금리 변동사유 발생 시 은행이 금리 변동 사실 및 사유를 문자로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보험사들은 2분기부터 보험상품 설명서에 보험료 할증 사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보험계약 표준약관에 할증기준을 포함한 보험료 산출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또 자동차보험의 '가족한정특약'에 형제·자매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리고 운전자 보장범위를 보험증권에 남겨야 한다.

특약상 가족에 형제나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가 포함되기



스트리트 패션 '핑크'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플래그십스토어 MCM하우스에서 패션 브랜드 MCM 2017 SS 시즌 '핑크 에토스'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때문에 이 특약 가입자는 자매나 형제의 사고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이는 모두 현장 메신저의 건의사항으로 개선된 것들이다.

이밖에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 전 문자 공지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동의서 간소화 개선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편의성 증대 ▲통장개설 규제 완화 등을 추진했다.

금융위는 이날 1기 현장메신저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제2기 현장메신저 출범식을 열었다. 2기는 올해 12

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소비자편익증진을 위해 제1기 현장메신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며 "제2기 현장메신저들이 금융소비자의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금융에로 전달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뉴스시스

## 정부, 서비스 R&D 투자 5년간 1조2500억으로 확대

정부가 서비스 R&D(연구개발) 투자 규모와 비중을 지난해 5788억원에서 오는 2021년까지 1조25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올려 서비스업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련한 추진 전략과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3대 추진 전략은 ▲정부 서비스 R&D 투자의 전략적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서비스 R&D를 통한 수출·내수 동반성장 촉진 ▲민간 서비스 R&D 투자 생태계 조성 등이다.

정부는 우선 산업화와 융합 가능성이 높은 3대 중점투자 분야에 신성장서비스, 서비스고도화, 서비스기반기술 등을 선정하고 단계별 투자 포트폴리오를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시스

## 신입사원 가장 하고 싶은 것 '집 장만' 1위

### 59.5% 차지... 2위 '자동차 구입' 16.2% · 여행상품 10.8%

신입사원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 1위에 '집 장만'이 꼽혔다.

쌍용건설이 올해 자사 신입사원 50명(평균나이 28.5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집을 장만하고 싶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많았다. 이는 2위인 '자동차 구입'을 택한 응답자(16.2%)의 3배가 넘는다. 이 밖에도 10.8%가 여행상품을, 8.1%가 기타를 꼽았다. 금융상품을 선택한 비율은 전체의 2.7%에 그쳤다.

'내 집 장만이 꼭 필요하냐'란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8명(83.8%)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택구입 유형으로는 아파트를 선택한 이들이 75.7%에 달했다. 빌라와 오피스텔, 전원주택은 모두 8.1%로

공동 2위에 올랐다. 현대인에게 적합한 주택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25평 이상~30평 미만이란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다. 30평 이상~40평 미만이란 응답도 37.8%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중소형 선호도는 높은 반면 중대형은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평 이상~50평은 10.8%, 50평 이상은 5.4%가 선택하는데 그쳤다. 내집 마련 시 부모가 지원해주길 바라는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스스로 마련하겠다'는 응답이 과반수(56.8%)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했다. 전체 금액의 25~50%를 지원해주길 바란다는 응답이 21.6%로 뒤를 이었다. 25% 미만은 13.5%에 그쳤다.

결혼 후 살고 싶은 자녀 수로는 10명 중 7명이 '2명 이상'이라 답했다. 응답자의 과반수가 '2명'을 선택했다. 3명 이상도 21.6%에 달했다. 1명이란 응답자가 13.5%, 낳을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는 10.8%에 그쳤다. 이밖에 구직활동 시 가장 힘이 된 사람으로는 '가족'이 응답률 37.8%로 1위를 차지했다. 친구(21.6%)와 애인(18.9%), 선·후배(10.8%)란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교수나 선생님을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시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어학연수·교환학생 등 해외프로그램'이 절반에 가까운 48.6%가 선택했다. ▲스타트 기업 등 벤처경력 29.7% ▲국토대장정·배낭여행 등 도전체험 16.2% ▲연애·친목활동 5.4% ▲인턴·대의 프로그램 0% 순으로 조사됐다. /뉴스시스

## 쉐보레가 준비한 2월의 선물

### 카마로 구입시 최대 80만원 할인 또는 맥북 선택

쉐보레(Chevrolet)가 2월 한달 기간 편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풍성한 혜택을 마련했다.

2월중 쉐보레 콰보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파크, 올 뉴 말리부 상품성 개선 모델, 카마로를 구입하는 고객은 최대 80만원의 현금할인 또는 맥북(MacBook)을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60개월 4.9% 할부 프로그램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타깃 고객 할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오는 6월 30일까지 입학, 졸업, 입사, 퇴직, 결혼, 신규사업, 신규면허, 이사 등 새출발 고객에게 최대 30만원의 현금할인을 추가로 제공하며, 5년 이상 노후차 보유 고객과 재한 외국인에게도 각각 최대 30만원을 할인해 준다.

특히 출산 및 임신 가정을 대상으로 '러브 베이비 이벤트(Love Baby Event)'를 시행, 출산예정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아기 요람, 베이비 매트, 애착 인형 등이 포함된 48만원 상당의 유아용품 패키지인 쉐비 베이비 키트를 제공한다.



신형 말리부

이와 함께 신형 크루즈의 이달 본격 판매개시에 앞서 올 뉴 크루즈 계약 고객 중 매일 한 명씩을 추첨하고, 선정된 고객이 2월중 차량 출고 시 맥북(MacBook)을 증정하는 '올 뉴 크루즈 에브리데이 이벤트'를 시행한다.

이밖에 올 뉴 크루즈 구입 고객은 새출발 지원 프로그램, 5년 노후차 보유고객 할인 프로그램 등 다양한 타깃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쉐보레가 이달에 준비한 프로그램에 정부의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혜택을 포함할 경우 캠퍼바 최대 373만원, 올 뉴 말리부 최대 331만원, 올란도 최대 315만원, 임팔라 최대 281만원, 올 뉴 크루즈 최대 254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군산=문정준 기자

## “3월부터 기프트카드 60% 쓰면 잔액 환불”

### 간단한 등록 절차만 거치면 분실했을 경우 보상도

다음 달부터 간단한 등록 절차만 거치면 무기명 선불(기프트)카드도 분실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발행금액의 60%만 쓰면 돈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표준약관을 제정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프트카드는 일종의 상품권처럼 일정 금액을 먼저 지불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카드다. 보통 선물용으로 거래되는데 금감원 조사 결과 발급된 카드의 80% 이상이 무기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탓에 해당 카드를 분실하면 누가 주인인지 알기 어려워 카드는 재발급이나 보상을 꺼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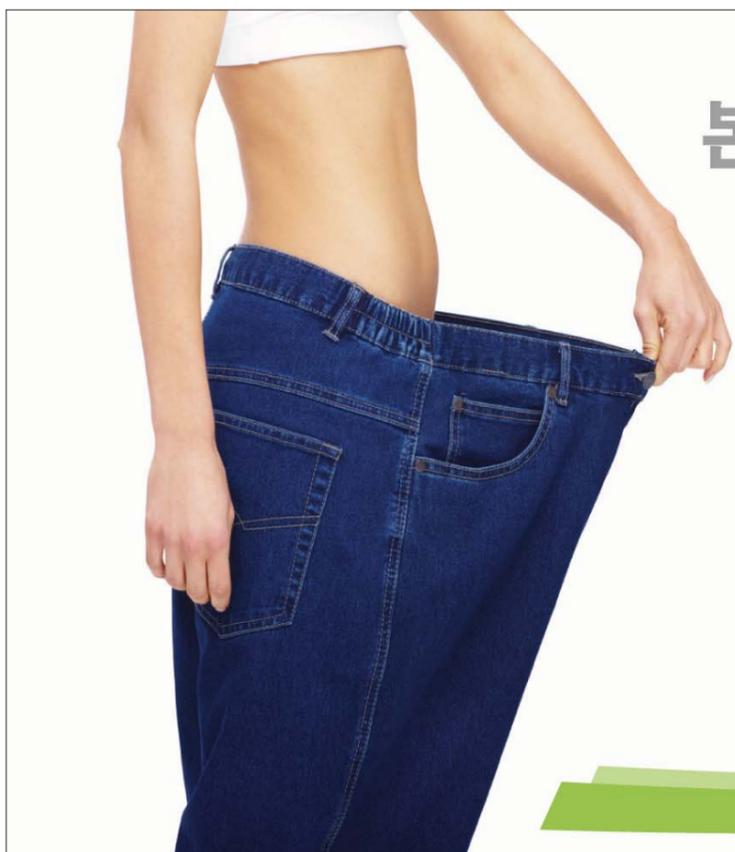
앞으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용 등록을 하면 무기명 선불카드도 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신고시점의 잔액으로 해당 카드를 재발급하고 신고일에서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금

액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카드는 보상에 필요한 정보가 없어 표준약관 시행 이후 사용 등록(신규·변경·갱신)된 카드에 한해 적용된다.

환불 요건은 완화한다. 종전에는 발행금액(총잔액)의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 환불할 수 있었지만 60%만 써도 1만원 받을 수 있다. 발행금액 등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안된다.

또 선불카드를 폐기한 상태에서 이전에 결제한 거래를 취소한 경우 영수증 등으로 고객 본인이 거래를 취소한 것이 확인되면 선불카드 실물이 없어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보상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카드사가 보상책임 면제받기 위해서는 고객의 고의·중과실에 의해 위·변조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고객의 고의·중과실 사유도 감독법규에 명시해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했다. /뉴스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